

헨리 나우엔에게서 얻는 목회상담자의 지혜

오 태 균*

국문초록

본 소고에서 연구자는 카톨릭과 개신교도 모두의 존경의 대상인 헨리 나우엔의 실천적 생애와 그의 저서들을 통해 목회상담자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에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메닝거 클리닉에서 임상 경험을 통해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상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자들은 상담의 현장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의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의 고난과 상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돌봄 목회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

나우엔에게서 상담의 목적은 인간의 죄책감, 억눌림, 상처로부터의 해방과 인간의 욕망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 상담의 과정은 인간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담의 기술적인 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한 장소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을 주장한다. 오늘날 목회 상담자들이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영성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인간에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우엔이 많은 이에게 보여준 견고한 균형성이며,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랑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심단어 : 헨리 나우엔, 목회상담, 상처, 지혜, 외로움.

• 논문 투고일: 2014년 4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10일

*충신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4년 5월 6일

I. 여는 말

지난 이천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목회적 돌봄은 다양한 모습으로 항상 존재해 왔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여정의 혼란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보편적 진리와 사회 담론의 해체는 지금 이 순간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사상적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현 시대를 위기가 일상인 시대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정성 있는 목회적 돌봄의 제공은 더욱 절실하다. 주일 예배에 소위 치유설교 한편만으로는 상처난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기는 역부족이다. 공적인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부단한 목양적 돌봄이 동반될 때 성도들의 영성 회복과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목회자는 설교, 행정, 리더십, 교육, 상담 등과 같은 다방면에서의 기능을 요구받고 있는 돕는 전문직(helping professional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목회자의 특질 중에서 본 소고에서는 성도들을 보살피는 목회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본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담자의 위치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교인들 역시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를 외부의 상담소를 찾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목회자를 찾아올 확률이 높다. 목회자를 통한 돌봄의 요청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목사는 그를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떤 형태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가족 내의 갈등, 직장에서의 문제 등등 여러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우선적 상

담 대상은 목회자가 우선순위에 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목회상담의 위치는 크게는 목회적 돌봄 범주 안에 있다. 과거에 목회 상담이라 함은 대부분 목양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생활 가운데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인들은 으레 목회자를 찾아오거나 심방을 요청하여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을 시도하였다. 당시 사회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며, 변화의 속도 역시 지금처럼 급박하지도 않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서울 올림픽 유치 이후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소위 IMF위기, 금융위기 이후로 미래의 현상들에 대해 가늠하기 힘든 사회로 전환되었다.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더욱 가중되어, 많은 이들이 사회적, 심리적, 가정적 상담의 문제를 안고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역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 함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자에게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증상의 완화 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요청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대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회 상담은 일반상담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목회 상담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존경받고 있는 헨리 나우엔에게서 그 교훈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작가로, 강연자로, 학자로, 교수로, 영성가로, 또한 치유자로 잘 알려져 있다. 비록 그가 카톨릭의 신학으로 구비된 사제였지만, 카톨릭과 개신교도 모두에게 많은 사랑은 받고 있는 20세기의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어로 번역된 60여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들과 관련된 서적들 중 50여권이 개신교 계통의 출판사를 통해서 국내에 소개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¹⁾

1) 양병모, “헨리 나우엔 영성이 현대 기독교인 영성에 미친 영향: 한 복음주의자의 견해”,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6권 가을호(2012): 70-107.

그의 대부분의 저서에서 카톨릭 신학적 색채가 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기독교론을 견지하며 인간 이해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개신교 신도들이 거의 저서에 큰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 또한 그는 평생 사역 가운데 평범한 신앙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기도, 공동체, 사역 (communion, community, and ministry) 이라는 3가지 주제는 그의 방대한 저서들 가운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라는 점²⁾ 역시 일반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따르고자 했던 그의 실천적 생애와 그런 과정을 담은 저서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목회 돌봄 사역자들, 특히 목회상담자는 그에게서 많은 상담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선 목회상담자로서 구비되기까지의 헨리 나우엔의 생애를 고찰한 후, 그의 저서들 가운데에 목회상담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되는 ‘상처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s), ‘영적 발돋움’ (Reaching out), ‘영혼의 양식’ (Bread for the journey), 그리 ‘아담’ (Adam: God’s Beloved) 등의 4권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그의 목회적 치유의 모습들에 대해 고찰한 후 이 시대의 목회상담자가 적용해야 할 지혜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상담자로서의 나우엔 생애 고찰

그가 목회상담자적인 치유자로서의 완성기까지는 크게 4단계로 분류

2) 오방식, “헨리 나우엔에게 있어서 기도, 공동체, 사역의 정체성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제27권 (2006): 301-333.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그의 영성 형성기로 태어나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로 서품받기까지 24년의 기간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전에 자신이 공부한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는 기간이었다.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교육 사역의 기간으로 주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왕성하게 저서를 출판하는 시기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나우엔의 영성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헨리 나우엔은 1932년 1월 24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도시 네이케르끄의 한 유복한 가정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세금 변호사 (tax lawyer) 겸 법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나우엔의 외조모가 경영하는 백화점의 가게에서 수석 경리 (head bookkeeper)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는 네덜란드 사람답게 자녀들에게 강한 독립심과 비평적 사고 (critical thinking)를 강조하는 자녀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진지한 카톨릭 신자들이었으며 특히 나우엔은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외조모는 나우엔의 이런 결심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경영하는 백화점 소속의 목수에게는 어린이용 강대상을, 제단사에게는 사제복을 만들어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할 정도였다.

사제가 되겠다는 어린 헨리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런 결심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영적인 면보다는 독립심이 강하고 능력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요구한 반면, 어머니와 외조모는 헨리에게 큰 업적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친밀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부모의 영향을 그의 생애에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그는 고백하였다. 즉 그가 안수받고 본격적인 사제의 길로 들어선 처음 30년은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살았고, 마지막 생애 10년은 어머니의 가르침

을 따라 살았던 것이다.³⁾

그의 고백처럼 그의 생애 첫 24년은 카톨릭 사제로서 준비하기에 완벽한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에서 성장했다. 전통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카톨릭 학교를 다녔으며, 그가 살고 있던 주변에는 카톨릭 외에는 다른 종교들을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보수적인 마을이었다. 어린 시절 나우엔의 생활 주변에서 이혼한 가정도, 동성연애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가 수학했던 신학교에서도 신학 훈련은 그에게 분명한 삶의 지침을 제시했고, 나우엔 스스로도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했으며, 잘 훈련된 기도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냄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⁴⁾

그의 삼촌 역시 사제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의 이모는 수녀였던 것만큼, 그의 집안 전체 분위기가 나우엔의 사제가 되는 결단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결심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⁵⁾ 그만큼 그가 성장했던 환경은 항상 그리스도와 만남과 친밀함을 강조했다, 그도 역시 영적인 삶이란 곧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으로 이해했다.⁶⁾

2) 인간에 대한 이해: 심리학과의 만남

그는 안수 받은 후에 자신의 대주교에게 심리학을 더 공부하겠다고 요청했다. 당시 심리학은 신학의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공부하겠다는 것은 다소 의아할 수 있으나, 그는 교회 사역을 좀 더 이해

3) Deidre LaNoue, *The Spiritual Legacy of Henry Nouwen*, 유희룡 역, 『헨리나우엔과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37-40.

4) Henri Nouwen & John Dear, *The Road to Peace: Writings on Peace and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8), xviii-xix.

5) Michael O'Laughlin, *Henri Nouwen: His Life and Vi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2005). 16.

6) Henri Nouwen, *Letters to Marc about Jesus: Living a Spiritual Life in a Material Worl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7.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1957년 9월 네이메겐 대학 (Nijmegen University)에서 7년간의 임상 심리학 박사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박사 과정을 마치기 전 네덜란드를 떠나 미국 하버드로 건너가 사회 심리학자이자 건강한 성격이 곧 성숙한 성격이라는 주장했던 성격이론⁷⁾의 대가인 Gordon Allport 밑에서 계속해서 수학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Allport 교수는 나우엔에게 캔사스 소재 CPE 프로그램의 산실인 메닝거 클리닉⁸⁾ (Menninger Clinic)으로 건너와 더 연구할 것을 권면했다. 1964년부터 2년간의 메닝거 클리닉에서 연구원 (a fellow) 자격으로 있으면서 그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⁹⁾

나우엔의 1964년부터 2년간의 메닝거 경험은 그에게 진정한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깨달음을 제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CPE의 핵심이 바로 목회적 돌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이 빠르게 역동 심리학 (dynamic psychiatry)과 합병되어 가면서 전후 정서적 혼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정신의학의 첫 번째 혁명이

7) 당시 Allport 교수는 건강한 성격을 성숙된 성격이라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첫째는 자아의식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한다. 넷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한다. 다섯째,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여 과업 지향적으로 행동한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일곱째, 통일된 일관된 인생철학을 갖는다. 즉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동기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

8) 메닝거 클리닉은 1919년 캔사스주 토페카 (Topeka)시에서 매닝거 가문에 의해 세워진 기관으로 초창기에는 단순한 정신병원으로 출발했으나, 곧이어 정신병동 및 요양소를 갖추게 되었고, 뒤이어 정신의학 전문학교 등이 세워졌다.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The Menninger School of Psychiatry가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서 가장 큰 정신의학 전문학교로 발돋움하였다. 이 학교는 의학, 정신역동, 발달, 가족체계의 관점에서 환자의 치료를 시도했기 때문에, 정신의학에서 혁명적인 교육의 중심으로 불리었다(http://en.wikipedia.org/wiki/Menninger_Foundation).

9) LaNoe, *The Spiritual Legacy of Henry Nouwen*, 42.

정신분석학의 발견과 적용이었다면, 두 번째 혁명이 바로 정신건강 전문가들 (Mental health professionals)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일이었다. 그들 중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심리학과 임상 훈련 후 정신병원이나 감옥 등지에 사목으로 채용되었다. 신학교 역시 이전에는 교과 과정에 없었던 정신병리, 정신역동, 인간발달, 그리고 상담과 같은 과목들을 개설하였고, CPE 운동이 이전보다 더욱 확산되었던 분위기였다.¹⁰⁾

그 후 나우엔은 메닝거에 만난 그의 동료 산토스(Santos) 박사의 주선으로 인디애나 주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카톨릭계 사립명문 노틀담 (Nortre Dame) 대학에서 막 시작한 심리학부에서 심리학 강의를 맡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프로이드의 무신론적 입장에 있던 심리학은 대부분의 개신교, 카톨릭 학교에서의 강의가 허용되지 않던 분위기에서 나우엔은 이상심리학을 강의한 최초의 교수가 된 것이다.

그는 거기서 우울(depression), 혼란(confusion), 친밀감(intimacy), 사랑 (love) 등의 주제에 대해 강의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의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는 비록 자기 스스로를 작가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Intimacy: Essays in Pastoral Psychology*란 제목으로 1969년 최초의 책이 출간되었다. 나우엔은 그 책에서 신학생들이 고민하는 내적인 삶 (inner life) 등 다양한 신앙적, 그리고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명하지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진정한 본향 (real home)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¹¹⁾

그 후 나우엔은 두 번째 저서인 *Creative Ministry*에서 심리학과 목회신학을 통합하려고 했던 목회적 돌봄 (pastoral care)에 대해 다루었다.

10) Paul Pruyer,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ersonal Problems in Pastoral Perspective*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76), 22-23.

11) Henri Nouwen, *Intimacy* (San Francisco, CA.: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80), 2.

그는 이 책을 통해 매너리즘에 빠지고 쉽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기 쉬운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5가지 핵심사역, 즉 교육(teaching), 설교(preaching), 상담(counseling), 행정(organizing), 예배(celebrating)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즉, 나우엔에게 창조적인 사역자란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 수준을 뛰어 넘는 교육자, 단순한 이야기 전달 수준을 뛰어넘는 설교자, 기술적인 반응 수준을 넘어선 상담자, 조직에 대해 조작을 넘어선 행정가, 그리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예식을 넘어선 축제로 승화시키는 예배자임을 제안한다.¹²⁾ 그가 제안한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창조적인 대화 (creative dialogue)가 필수적임을 나우엔은 강조한다.

그러나 나우엔은 노틀담에서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주된 관심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학문적 세계가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심리학에 있지 않고, 심리학과 신학과의 통합, 그리고 영성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노틀담 대학에서의 교수생활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¹³⁾ 그는 1968년 화란으로 돌아가 Nijmegen 대학에서 마치지 못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심리학과 영성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그의 관심사는 여전히 영성, 기도, 공동체, 사역 등에 대한 주제들이었다.

3) 사역에 대한 이해: 학문과의 만남

1971년 예일대학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Collins Williams는 나우엔의 *Intimacy*란 책을 읽고 나우엔을 예일대학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한다. 본래 그는 화란에 계속 남아서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당시 그곳 분위기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우엔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교단의 학생들이 모여있고, 비교적 화

12) Henri Nouwen, *Creative Ministry* (New York: Random House, 2003), 2.

13) 양병모, “헨리 나우엔 영성이 현대 기독교인 영성에 미친 영향”, 70-107.

란보다 자유로운 미국의 학풍으로 인해 예일로 가기로 결심한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나우엔이 예일 대학에 제시한 조건은 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겸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즉, 그는 그가 완성하지 못한 박사학위논문을 쓰지 않을 것이며, 부임한 후 5년 내로 정년보장 정교수직을 보장할 것과, 자신이 저술한 모든 논문과 저서에 대해 대학의 어떤 학적인 잣대에도 평가하지 말 것을 학교 당국에 요구했다. 다소 무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Williams 학장은 나우엔을 반드시 예일로 데려오고자 했던 간절함 덕분에 그의 이런 요구들은 모두 수용되었고, 그는 그곳에 정착하여 10년 동안 명강사로서,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날린다. 그는 예일에 있는 동안 그의 대표적인 저서 12권을 출판했다.¹⁴⁾

이 시기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많은 강연, 저술 등으로 가장 생산성이 있었던 시기이다. 많은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왔고 교수로서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고, 1972년 목회적 돌봄 영역에서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상처입은 치유자'를 출판했다. 나우엔은 이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역자가 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그는 현대인의 처한 어려움을 규명하려는 노력 끝에 우선 사역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¹⁵⁾ 그는 그 책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상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는 상담의 현장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의 가능한 자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시대에 사역자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 말로 목회 사역의 출발점임을 알아야 한다고 나우엔은 강조한다.

그는 예일에서 있으면서 두번의 안식년을 뉴욕 주 북부 아름다운 제

14) LaNoe, *The Spiritual Legacy of Henry Nouwen*, 46-48.

15) Henri Nouwen,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최원준 역, 『상처입은 치유자』 (서울: 두란노, 1979), 10.

네시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제네시 수도원¹⁶⁾을 재차 방문하게 된다. 나우옌은 그 수도원에서 자신이 늘 주장하고 가르치고 글로 표현했던 참된 영성의 요소들, 즉 홀로 있음, 내적 자유, 기도 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시간을 가졌다. 사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그의 생애 최대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12권의 책을 출판할 만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화려함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릴만큼 그는 정신적으로 지쳐있었다. 제네시에서 말씀, 묵상, 기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된 나우옌은 예일에서 강의했던 기독교의 영성을 정리하여 ‘영적 발돋움’ (*Reaching out*)이란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그는 기도, 명상, 겸손, 친밀함, 영적 생활과 같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영적인 삶의 환경과는 거리가 먼 명성, 성공, 경쟁 구도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모순된 자신을 발견하고 고뇌하게 된다. 결국 그는 1981년 7월 예일대학의 종신직 교수직을 사임하고,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자 제네시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간다.¹⁷⁾

4)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해: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에서의 정착

나우옌은 제네시 수도원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끝에 하나님의 사랑의 큰 빛을 진자라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남미 페루의 한 빈민가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떠나게 된 동기는 자신만이 누렸던 풍요로움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영적 투쟁의 결과였다. 그러

16) 그곳에는 Dom John Eudes Bamberger가 그 수도원의 4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나우옌은 1964년 메닝거 연구소 연구원시절부터 그와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여 자신의 영적 멘토로서 간주하고 있었다. 뱌버거는 2001년 8월 그의 나이 75세 생일에 제네시 수도원장직을 물러나기까지 30년 이상 그곳에서 사역했다 (www.abbotjohnneudes.org).

17) LaNoe, *The Spiritual legacy of Henry Nouwen*, 50-59.

나 그의 그런 결단은 의외로 얼마가지 못하고 빈민가에서의 공동체 삶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그는 다시 하버드 대학 강단으로 복귀하지만 그의 영혼은 평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95년 9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리치몬드 힐(Richmond Hill)에 위치한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 라르쉬¹⁸⁾ 데이브레이크(L'arche Daybreak)의 관계자들은 나우엔을 자신들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체 사제 (as their pastor)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을 해 왔다.¹⁹⁾

나우엔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1986년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후에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진정한 가정 (a true home for me)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곳에는 그는 20대 중반의 아담 (Adam Arnett)이란 이름을 가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자신의 친구이자, 선생, 안내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담은 다른 사람과 다른 비범한 청년도, 더군다나 천사도 아니었다. 그저 여러 사람들과 같은 신체적,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태어난지 3달 만에 고열로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의사로부터 간질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결국은 라르쉬로 오게 되었다. 누군가 그를 돕지 않으면 아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혼자 할 수 있는 일

18) 노아의 방주 (The Ark)란 뜻의 라르쉬는 1964년 캐나다인 Jean Vanier가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인 Trosly-Breuil에 거주하면서 2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후 1969년 한 카톨릭 수녀회가 소유하고 있었던 5에이커에 해당하는 부지를 뉴워스 부부 (Steve and Ann Newworth)에게 기부함으로써, 라르쉬 데이브레이크가 설립되었고, 현재에는 전세계에 각지에 140개의 공동체 형성되어 교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성장, 경쟁력, 지속적인 우정을 목표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www.larchecommunity.com).

19) Nouwen, *Creative Ministry*, 13.

이 아무것도 없었다.²⁰⁾

그런 아담을 돕는 일이 나우엔에게 주어졌다. 그는 요리를 포함한 집안의 모든 허드렛일들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을 아침 7시에 잠자리에 깨워서, 옷을 갈아 입히고, 샤워와 면도를 시켜서, 아침을 먹이고,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어느 때고 아담이 화장실에 가고자 하면 그 역시 나우엔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담과 지내다 보면 오후 4시 쯤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본래 업무인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은 간호사와 같은 그런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아담이란 청년은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의 소리는 “우리가 도울테니 너는 할 수 있다”였다.²¹⁾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면서 공동체는 한쪽이 베푸는 장소가 아니라, 상호간에 주고받는 축복의 장소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나우엔은 매일 반복되는 아담과의 고된 일과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제로 간주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 그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아담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젊은 청년 아담은 1996년 2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의 죽음은 마치 나우엔에게는 새벽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 (a wake-up call)과도 같았다. 나우엔은 그를 통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 (an image of living Christ)을 보게 되었다. 그는 아담의 죽음 후에 그동안 자신이 신학교에서 해왔던 일체의 신학적, 역사적 논문들을 읽는 것을 중단하고, 아담의 생애와 소명에 대해 깊이 묵상했다. 신체적으로나

20) Henri Nouwen, *Adam: God's Beloved* (New York: Obis Books, 2013), 26.

21) Nouwen, *Adam*, 41-42.

정신적으로 너무도 연약했던 아담은 나우엔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 언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는 후원자와도 같았다.²²⁾ 1996년 9월 나우엔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는 이런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진정한 그리스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한 영성가, 목회자,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2. 목회 상담자로의 헨리 나우엔

목회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성이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적 돌봄이자 상담이다. 나우엔은 공동체가 자신의 영성생활에 필수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예일이라는 상아탑 공동체는 그에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쟁의 구도, 부와 명예의 추구하고, 사람들의 갈채를 동경하는 모습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장에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나우엔은 자신의 인간관, 상담자관, 치유관 등을 다시 정립하게 된다.

1) 나우엔의 인간관

나우엔은 Antonio Porchia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시대의 사역자를 용기를 내어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백 개의 닫힌 문을 만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부르심에 대해 “사역자의 부르심은 자신의 시대가 처한 고통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한다.²³⁾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상처입

22) Nouwen, *Adam*, 15-17.

23) Nouwen, *The Wounded Healer*, 10.

은 치유자'에서 그의 인간관과 치유관을 엿볼 수 있다. 나우엔은 Riesman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속한 당시 세대를 고독한 군중의 세대에 속한 익명의 일원들로 이해하면서, 장차 다가올 세대는 그 고독한 군중의 자녀들이 될 것이며, 그 시대의 사역자들이 고려해야 할 3가지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²⁴⁾

첫째 나우엔이 말하는 오늘날의 인간상은 내향적 (inwardness) 세대이다. 이들의 내향성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반권위적이고 반제도적이며, 물질적 안락함과 즉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내향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변혁시키는 에너지와 헌신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우엔이 보는 이 시대 인간상의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 상실의 시대 (fatherlessness)로 규정한다. 내향적인 세대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높은 지위나 권위가 있다고 해서, 더 많은 힘이나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들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위로부터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세대이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온 세대를 신뢰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이 직접 시도하여 실패하는 것을 목격하기를 선호하는 세대이다. 결국 이들의 기준은 아버지 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동료, 친구가 된다.

이 시대의 세 번째 특성에 대해 나우엔은 강박성 (compulsiveness)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불안, 신경과민, 정신 산만 등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세대이며, 자신들이 속한 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비록 그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은 부족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세대이다.

24) Henri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A Daybook of Wisdom and Faith*, 박동순 역, 『영혼의 양식』 (서울: 두란노, 1997), 41-54.

2) 나우엔의 치유자관

나우엔은 현대 사회의 사역자를 상처입은 치유자²⁵⁾로 정의하며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입은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상처입은 치유자의 개념은 현대에 들어와서 정신의학자 Carl Jung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그는 상담현장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무의식 가운데 자신의 상처가 내담자의 상처와 상호작용, 즉 전이,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게 됨으로써 이 개념은 다른 치유자들에게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나우엔은 이 개념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이 개념을 공동체의 사역자들에게 적용시켰고,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나름대로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으며, 자신의 상처에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우엔에게 상처입은 치유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묘사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이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묵회 상담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 (healing)을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이고, 예수님의 붙드심 (sustaining)을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며,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guiding)을 생각나게 하는 상담자라고 할 수 있다.

나우엔의 내일의 상담자상, 즉 이 시대의 묵회 상담자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모습으로 설명한다. 첫째, 그들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 즉 그의 표현대로라면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 어느 때 보다도 주

25) 본래 상처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몸은 말의 모양이고 머리는 인간의 형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이론 (Chiron)은 어느 날 자신의 제자였던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에 맞게 되는 데 그 화살에는 괴물 히드라의 피가 묻어있어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다. 카이론은 신의 운명을 가졌기에 죽지는 않았지만, 늘 그 고통을 몸에 지닌 채 다른 이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카이론은 역설적 아이러니를 그대로 보여준다. 즉, 본인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명성을 지녔지만, 정작 자신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의를 귀울이는” 사람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동료들을 재발견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로는 묵상하는 사람으로써 “자신들의 충동적인 욕구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들의 번덕스러운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²⁶⁾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상처투성이인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 상담자의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우엔의 목회 상담자관

나우엔은 자신의 저서 ‘영혼의 양식’ (*Bread for the Journey: A Daybreak of Wisdom and Faith*)을 통해 목회 상담의 핵심적인 요소들, 즉 상담의 목표, 상담과정, 상담기술 등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나우엔에게 상담의 목적은 우선 인간의 죄책감, 억눌림, 상처로부터의 해방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한 좌절감, 절망, 분노 등으로 인한 상처의 유무를 진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내담자가 그런 감정에 사로 잡혀 있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딛고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해야 하며, 그럴 때 내담자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담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거나 더 심하게 병적인 즐거움을 머무를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들의 마음, 생각, 영혼에 가득 차 있는 욕망들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욕망들을 다 뿌리 뽑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욕망은 생각만큼 다루기가 쉽지도 않고, 때로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고, 내담자의 마음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일부 욕망은 내담자에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하

26) Nouwen, *The Wounded Healer*, 65.

27)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1월 9일.

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묵회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런 욕망들이 선별적으로 잘 정리 정돈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²⁸⁾

둘째, 나우엔에게 상담의 과정은 인간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도의 실천은 내담자의 치유과정에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실천하는 기도는 인간의 “의식적인 삶과 무의식적인 삶을 이어주는 다리”²⁹⁾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우엔에게 상담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본질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우엔이 이해하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³⁰⁾이다. 마지막으로 나우엔은 상담 과정에서 기다림의 영성 (Spirituality of waiting) 회복을 촉구한다. 요즘처럼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현대인에게 기다림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은 보통 이상의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다.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 안정을 누리기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핵심정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보통 사람들 보다 매사에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인내하지도 기다리지도 못한다. 모든 영성가들에게 그러하듯이 나우엔에도 기다림은 영성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³¹⁾

셋째, 나우엔이 말하는 상담의 기술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안전한 장소” (Being safe places for others)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³²⁾ 이를 위

28)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4월 21일.

29)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1월 15일.

30)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1월 16일.

31)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11월 19일.

32)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12월 30일.

해서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서 우선 자유로워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내담자는 상담 현장에서 자신 모습과 형편을 개방하게 된다. 사실 다른 사람의 태도, 행동,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강요당하는 세상에서 이런 판단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³³⁾ 그럼에도 목회상담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를 수시로 또한 깊이 있게 묵상하며 점검할 때 내담자의 일시적이거나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나우엔이 목회상담자에게 주는 지혜

나우엔이 현대인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우엔의 영성은 이상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며 매우 사변적인 동시에 행동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또한 공동체적이었다. 즉 나우엔은 이들 양자사이에서 매우 균형잡힌 영적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³⁴⁾ 이런 균형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목회상담자는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두 개의 기둥, 즉, 상담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부류와 계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늘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 영적으로 구비된 목회상담자

목회 상담은 상담의 한 범주에 속해 있지만, 일반적인 상담에 대한 이해, 소양과 더불어 목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며 그 분을 따르는 성도들이며,

33) Nouwen, *Bread for the Journey*, 12월 2일.

34) 양병모, “헨리 나우엔 영성이 현대 기독교인 영성에 미친 영향”, 70-107.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상담자는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다른 지체를 돕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런 신적인 부르심 (divine calling)에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목회 상담자에게서 영성은 다른 어떤 상담적 소양보다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상담자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³⁵⁾ 목회상담이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는 죄의 탓에 걸려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각종 두려움과 내면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신체적으로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현존하심을, 임재하심을 그들이 깨닫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전환기를 마련해 주는 복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상담자의 영성이 먼저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내담자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⁶⁾

나우엔이 말하는 영적인 성숙을 위한 삶이란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자아를 향한 발돋움, 또한 내 주변을 살피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발돋움,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으로 요약될 수 있다.³⁷⁾

(1) 목회상담자의 자아를 향한 발돋움

그의 예리한 통찰력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 (loneliness)과 홀로 있음 (solitude)의 양극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다.³⁸⁾ 목회상담자

35) Yolanda Dreyer, "Beyond Psychology: Spirituality in Henri Nouwen's Pastoral Care,"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59, no. 3(2003): 715-733.

36) 변영인, "헨리 나우엔의 영성과 치유적 상담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47-81.

37) Henri Nouwen, *The Reaching Out: The Three Moments of the Spiritual Life* (London: Fount, 1990), XIX.

38) Nouwen, *The Reaching Out*, 14.

역시 한 인간으로서 상담 사역 현장에서 상담 과정의 더딘 발전, 교착 상태, 더 나아가 상담의 실패 등으로 인해 여러 번 혼자라는 실존적인 문제로 인해 아파하며 불행감에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이런 실존적인 외로움은 목회 상담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의 정서적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며, 현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서적 전염병과도 같다.³⁹⁾ 상담자는 이런 외로움을 고통과 절망의 체험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로서의 영적인 성장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상담자는 사역 현장에서는 비록 혼자이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을 지지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더 이상 외로움의 정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한걸음 도약하여 나우엔이 말하는 홀로 있음, 즉 고독의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다.

(2) 목회 상담자의 이웃을 향한 발돋움

목회 상담자는 자신의 주된 역할이 내담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자이다. 어색하고 때로는 적대적일 수 있는 분위기가 환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현장을 우애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며, 공동체의 삶속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환대의 개념을 목회 상담 현장에 적용하면 낯선 내담자들을 상담자의 조건이 아닌 그들의 조건에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이런 환대가 중립적이며, 아무런 주관성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된 수용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경계와 선이 있어야 하며, 오히려 이런 분명한 선이 있는 자리만이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⁴⁰⁾

39) Henri, Nouwen, *The Only Necessary Thing: Living Prayerful Life*, 윤종석 역,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서울: 두란노, 2010), 50-51.

40) Nouwen, *The Reaching Out*, 54-55.

(3) 목회상담자의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나우엔의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란 각종 환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⁴¹⁾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목회상담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자 상담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의 난관에 부딪힐 때 상담자는 혼자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으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신자에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상담자의 노력이나 훈련, 혹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등으로 그 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 갈 수 없다. 상담자가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인식할 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

나우엔 자신이 현대의 보통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위급함과 긴급함의 지속적인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에 때때로 힘겨워 했지만⁴²⁾,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성과 목회적 돌봄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목회 상담자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때 일반적인 상담 기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충을 사용해야 하며, 사역으로 지친 영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때야 비로소 상담자의 바른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목회상담자

오늘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교단들은 대학졸업과 소위 신대원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서 3년간의 신학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년 동안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교과과정을 수학하다 보니 목회상담의 위치는 비교적 다른 전통적인 학문에 비해 그 위치가 상당히 미약하

41) Nouwen, *The Reaching Out*. 85-86.

42) Henri Nouwen, *A Cry for Mercy*. (New York: Doubleday Image Inc., 2002), 30.

다. 한국에서 1990년 이전만 해도 목회상담학을 제대로 전공해서 가르치는 신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소한 분야였다. 서구 사회를 살펴봐도 목회상담학은 신학교의 다른 학문들, 즉 성경신학, 조직신학, 교회사등과 같은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 역사가 짧으며, 학문으로 자리매김한 지 1세기가 채 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해체 등 신앙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문제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목회상담과 임상적 요구로 인해 독자적인 학문으로 탄생하였다.⁴³⁾ 그동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적 훈련에서 상담이나 심리학에 대한 학문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이는 곧 목회 상담자로서 인간 이해에 대한 부족함으로 귀결되었다. 유능한 목회 상담자는 신학과 목회학을 중심으로 한 영성, 전문적인 상담 방법론을 다루는 상담학,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심리학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⁴⁴⁾

대부분의 신학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상담학에 대한 부분도 개론적인 과목들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목회상담학 과목에서 상담에 대한 제이론과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신학생들에게 내담자 경험과 개인 상담의 경험을 수업 시간의 연장으로 제공한다면 미래의 목회 상담자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목회 상담자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상처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인격적 문제점들을

43) 홍인중, “한국 장로교 100년: 목회상담의 회고와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제44권 2호(2012): 75-104.

44) 김태수, “섬김의 리더십과 목회 상담자의 역할”,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 (2004): 155-181.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우엔의 저서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궁극적인 관심은 영적인 성장 (spiritual growth)에 있었지만, 훈련된 심리학자이기도 한 그는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간 심리의 병리적인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심리학은 묵회 상담자에게 개인의 성장, 특히 영적인 성장을 이해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우엔은 현대인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정서적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박하여 분주하게 만드는 일에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⁴⁵⁾ 사실 나우엔 자신도 이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안식년 때 제네시 수도원에 머물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 “홀로 있음, 내면의 자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연을 다니고, 저술 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의 충동과 환상으로 인해 계속 넘어지곤 했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보다는 그 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아마도 기도에 관한 글을 쓰면서 기도 생활을 멀리 했는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칭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⁴⁶⁾ 즉,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우엔도 실존적인 외로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우엔에게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는 외로움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한다든지, 아니면 외로움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의 태도의 전환, 즉 외로움으로부터

45) Nouwen, *The Reaching Out*, 21-23.

46) Henri Nouwen, *The Genesee Diary: Report from a Trappist Monastery*(New York: Doubleday Inc., 1976), 13.

홀로 있음으로의 전환이 그 해결책임을 깨달았다. 즉, 내적인 건강,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광야로 뛰어 들어가 조용하지만 끈질긴 노력을 통해 그 삭막한 광야를 홀로 있음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다.⁴⁷⁾ 이런 실존적 인간에 대한 이해야말로 영성의 구비와 더불어 이 시대의 목회 상담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V. 닫는 말

오늘날도 영성을 맑게 울리는 나우엔의 저서들은 팍팍한 일상의 삶속에서 지친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호응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 명예, 부를 소유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감을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다. 오늘날도 사역의 현장에 있는 많은 목회 상담자의 위치에 있는 사역자들은 그의 저서들을 통하여 그 동안의 자신의 개인적인 영성생활과 사역의 방향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 목회상담자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히려 내담자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피력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자이다. 목회 상담자는 심리학적인 지식을 통해 일반은총의 영역과 더불어 일반 상담 혹은 정신의학에서는 제공해 줄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목회 상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담자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7) Nouwen, *The Reaching Out*, 31.

목회상담이 일반상담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일반상담에서 수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기법과 특징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기반을 둔다는 점과 신앙적인 요소를 갖춘다는 점이다. 신앙적 요소라 함은 일반 상담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찬식, 예배, 소그룹, 안수, 양질의 신앙 서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교인이 일반 상담사보다 목회자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부여한 영적 권위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상담사와는 달리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생활 형편과 심령상의 안위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일반상담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목회자는 지역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유리한 상담자의 위치에 있다. 이미 교인들과는 오랜 유대관계를 통해 상담에서 필요한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고, 접근성이 다른 상담자에 비해 유리하며,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지체들이 상담을 주저하는 이유가 있다면 목회 상담이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조언과 같은 보편적 범주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우엔이 강조했던 것처럼 목회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보다 만족스러운 관계, 즉 내적 평안(inner peace)을 찾을 수 있도록⁴⁹⁾ 도와주는 공동체를 치유하고 풍요롭게 하는 사역자이다. 또한 목회 상담의 사역 영역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역장, 셀 리더와 같은 소그룹 지도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대학 청년부 리더들에게도 목회 상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공동체 안에서의 상담사역에 진지하게 참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48) 안석모 외, 『목회상담 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2009), 56-57.

49) Gerald Twomey, “Henry Nouwen at the Abbey of the Genesee,”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143, no2(2008): 177-197.

【 참고문헌 】

- 김태수. “섬김의 리더십과 목회 상담자의 역할”.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권 (2004): 155-181.
- 변영인. “헨리 나우엔의 영성과 치유적 상담에 대한 고찰”.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 (2008): 47-81.
- 양병모. “헨리 나우엔 영성이 현대 기독교인 영성에 미친 영향: 한 복음주의자의 견해”.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26권 가을호 (2012): 70-107.
- 안석모 외. 『목회상담 이론 입문』. 서울: 학지사, 2009.
- 오방식. “헨리 나우엔에게 있어서 기도, 공동체, 사역의 정체성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제27권 (2006): 301-333.
- 홍인중. “한국 장로교 100년: 목회상담의 회고와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제44권 2호(2012): 75-104.
- Dreyer, Yolanda. “Beyond Psychology: Spirituality in Henri Nouwen's Pastoral Care.” *HTS Theologi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59, no. 3(2003): 715-733.
- LaNoe, Deidre. *The Spiritual Legacy of Henry Nouwen*. 유해룡 역. 『헨리나우엔과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Nouwen, Henri. *The Genesee Diary: Report from a Trappist Monastery*. New York: Doubleday Inc., 1976.
- Nouwen, Henri.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최원준 역. 『상처입은 치유자』. 서울: 두란노, 1979.
- Nouwen, Henri. *Intimacy*. San Francisco, CA.: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1980.
- Nouwen, Henri. *Letters to Marc about Jesus: Living a Spiritual Life in a Material World*.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8.
- Nouwen, Henri. *The Reaching Out: The Three Moments of the Spiritual Life*. London: Fount, 1990.
- Nouwen, Henri. *The Reaching Out: The Three Moments of the Spiritual Life*. 이상미 역. 『영적 발달움』. 서울: 두란노, 1992.

- Nouwen, Henri. *Bread for the Journey: A Daybook of Wisdom and Faith*. 박동순 역. 『영혼의 양식』. 서울: 두란노, 1997.
- Nouwen, Henri & John Dear, *The Road to Peace: Writings on Peace and Justic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8.
- Nouwen, Henri. *A Cry for Mercy*. New York: Doubleday Image Inc., 2002.
- Nouwen, Henri. *Creative Ministry*. New York: Random House. Inc., 2003.
- Nouwen, Henri. *The Only Necessary Thing: Living Prayerful Life*. 윤종석 역.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서울: 두란노, 2010.
- Nouwen, Henri. *Adam: God's Beloved*. New York: Orbis Books, 2013.
- O' Laughlin, Michael. *Henri Nouwen: His Life and Vi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2005.
- Prayer, Paul.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ersonal Problems in Pastoral Perspective*. Philadelphia, P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Twomey, Gerald. "Henry Nouwen at the Abbey of the Genesee." *Cistercian Studies Quarterly* 143, no2(2008): 177-197.
-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www.wikipedia.org>)

【 Abstract 】

The Wisdom of Pastoral Counselor from Henri Nouwen

Taekyun Oh

Cho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Henry Nouwen's contribution to pastoral care and healing ministry. While pastors view their involvement in faith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and work as guiding people toward a life of wholeness and integrity, they realized that they are not well-prepared enough or equipped as pastoral counselors. This paper investigates how pastors can get some helpful wisdom and knowledge from Henry Nouwen. As a Catholic theologian, Henry Nouwen has gained much popularity and respect in Christian circles. Nouwen combined a strong devotion to God with a comforting yet distinctly intellectual style that strikes a strong and sympathetic cord. Many pastors, professors, and lay people are attracted to his deep thinking and insightful healing approach for those who live in post-moder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Henri Nouwen's four representative books among more than fifty published books, 'Wounded healer', 'Reaching out', 'Bread for the journey', and 'Adam' to discover the lessons and insights for helping professionals, especially pastoral counselors.

Born in Nijkerk, Holland, Nouwen felt called to the priesthood at a very young age due to his family environment. After ordination as a diocesan priest he studied psychology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Nijmegen. And then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to study at the Menninger Clinic, in which he equipped himself as professional counselor. He went on to teach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and the Divinity Schools of Yale and Harvard. For several months during his sabbatical years, Nouwen lived and worked with the Trappist monks in the Abbey of the Genesee, and he had experienced genuine intimacy with God. After realizing his calling from God, he joined

L'Arche in France, the first of over 100 communities founded by Jean Vanier wher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e with assistants. A year later Nouwen came to make his home at L'Arche Daybreak near Toronto, Canada.

The above mentioned literatures provide the necessary and essential insights for pastoral counseling in faith community. He describes what he calls the “nuclear man”, characterized by historical dislocation, fragmented ideology and the search for immortality. This concept comes close to the common concept of the individualistic, post-modern, social constructionist man. He describes ‘tomorrow’s generation’ as inward, fatherless and convulsive. From that, he derives ‘tomorrow’s leader’, ‘minister’ or ‘healer’ as an articulator of inner events (through articulating his own experiences, one can understand and help others recognize the work of God in themselves), a man of compassion (as a base of his authority) and a contemplative man - a man of deep prayer.

Weaving keen cultural analysis with his psychological and religious insights, Nouwen has come up with a balanced and creative theology of service that begins with the realization of fundamental wounds in human nature. Emphasizing that which is in humanity common to both minister and believer, this wound can serve as a source of strength and healing when counseling others.

It is his contention that ministers are called to recognize the sufferings of their time in their own hearts and make that recognition the starting point of their service. For Nouwen, ministers must be willing to go beyond their professional role and leave themselves open as fellow human beings with the same wounds and suffering — in the image of Christ. In other words, we heal from our own wounds. For Nouwen, the purpose of pastoral counseling is to deal with guilty feeling, oppression, liberation from wounds and desire that human beings possess. After coming to a concis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a his view of human being, Christian healer, and pastoral counselor, this article suggests two wisdom for the pastoral counselors: spiritually well-equipped pastoral counselor, and concret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Key words: Henry Nouwen, pastoral counselor, wounded healer, wisdom, loneliness